광양시, 영농철 농업인 부담 덜어주기에 나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 찾아가는 농기계 점검과 교육 실시

광양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계 임대사업장과 직접 찾아가는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 덜어주기에 나서고 있다.

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농업기계 구입가의 0.3%인 저렴한 임대료로 농업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다.

또 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임대용 농업기계 106종 575대 보험가입을 완료했으며, 농기계손해와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자기신체손해, 다른 농기계 운전 담보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 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 밭작물 농업 임대기계 25종 90여 대를 구입해 운영하는 등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바쁜 영농철인 5월~6월을 맞아 발전기과 수리장비를 갖춘 차량과 베테랑 수리기사 등으로 구성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 농촌마을을 순회하며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적기에 영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점검방법과 안전수칙, 응급 발생 시 처리요령 등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양시, 광양읍 경전선 폐철도부지 경관숲 조성 완료

수목 · 꽃잔디 등 식재 도심 속 작은 숲 휴식 공간으로 기대

광양시는 광양읍 경전선 폐철도부지인 동일터널부터 광양장례식장까지 약 2.2km 구간에 '경관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전선 복선화에 의해 구 광양역사와 철도가 폐선됨에 따라 부지를 활용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의견이 제시돼 추진됐다.

경관숲은 폐자원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될 위기에 놓인 폐철도를 생태와 녹지공간으로 재정비해 시민들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 LF스퀘어 광양점, 광양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들어서는 전남도립미술관의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소통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등 힐링 도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돼 왔었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2016년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개통하고, 지난해 10월부터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목 3만 4천여 그루, 초화류 3만 8천본을 식재했다.

특히, 선형적인 공간으로 메타세콰이아가 쭉 뻗은 '동일터널~운전면허시험장' 구간에는 홍가시, 황금사철, 꽃잔디를 식재해 계절감을 한층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장~광양장례식장' 구간에는 푸조나무와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나무를 심어 도심 속 작은 숲을 조성했다.

정현주 공원녹지과장은 "이번에 조성된 경관숲이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생활 주변 가까이에서 숲길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양의 명품숲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모집

나주시가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한다.

시 보건소는 29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관내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개선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 관리해주는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총 80명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수치 등 총 5가지 건강위험요인 중 1개 이상인 성인이 해당된다.

단, 고혈압(140/90이상) 및 당뇨질환자(혈당 수치 126이상)는 제외되며, 서비스 특성 상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시 보건소 보건지원팀(☎061-339-2155)으로 유선 접수하면 되고, 이후 사전검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순천시 해룡 와온마을 뒷산 전망대 설치 추진

순천만 · 여자만 한 눈에 감상

순천시 해룡면 와온마을 뒷산에는 순천만의 청정갯벌과 솔섬 일몰이 아름다운 와온해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소코봉 전망대' 건축이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순천만습지와 순천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코봉에 4월부터 새로운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코봉은 순천만을 감싸안은 와온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가 누운 형상을 하고 있다.

순천만 일몰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장면으로 전문 사진작가들과 관광객들에게 '인생샷'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핫 플레이스로 각광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와온해변은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하여 또 다른 생태관광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소코봉 정상에서 순천만을 감상 할 수 있는 전망대와 나무계단,안전난간 설치등 등산로를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채승연 순천시 관광진흥과장은 "순천만 소코봉 전망대가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벗어나 순천만 및 여자만의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매김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일몰이 아름다운 해룡 와온 소공원 및 해변 데크길 함께 많은 관광객 유치로 해룡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수만리 철쭉 단지 환경 개선 추진

화순군은 수만리 철쭉단지 생육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수만리 철쭉단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봄 철쭉이 아름답게 꽃 피우도록 적극 관리 할 방침이다.

화순읍 수만리는 국립공원인 무등산 백마능선 앞자락에 위치하여 화순 팔경으로 손꼽힐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 남도의 알프스라 불린다.

수만리에 조성된 철쭉단지는 2006년 3월 화순읍 만연폭포에서부터 수만리, 큰재 등 도로를 따라 약8km 경사면에 영산홍, 자산홍등 6개 품종 100만여 그루를 식재하여 매년 봄철이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피워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전국 제일의 봄나들이 명소로 널리 알려져 왔다.

최근에 꽃이 예전처럼 화사하지 않고 개화가 부진하다는 의견이 많아 군에서는 총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옛 명성을 회복 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를 받아 근본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 자문 요청에 따라 금년 5월초 현지를 확인한 '전남도 산림환경 연구소 오찬진 박사' 등 전문가 진단에 의하면, 금년 봄 철쭉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를 작년 12월 강수량 부족했고 금년 4월초 강설로 인한 꽃눈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고온에 의해 개화보다 잎 생장이 빠른 이상기온에 의한 식물의 생리적 변화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러한 이상 기온에 의한 철쭉꽃 개화 지장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도 자주 기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 했다.

또한, 철쭉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하나 철쭉 식재지 일부는 연접 산림 내 수목이 햇빛을 차단하고 북향에 식재된 철쭉은 오전에만 햇빛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생육환경 불량하다고 진단하였다.

군은 20여명의 전문 작업단을 활용하여 5월말 수목 지하고를 높이는 작업과 전정 작업을 조기에 실시하고, 병해충방제 등 각종 피해를 예방을 위한 작업을 병행하여 내년 봄 아름다운 꽃을 피워 상춘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봄나들이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YMCA 어린이 축제 '아이(我爾)' 성료

우리지역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 중 하나인 제9회 순천YMCA 어린이 축제 '아이'가 최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아이'는 한자어로 '我(나 아)'와 '爾(너 이)'가 합쳐진 단어로 '나와 너가 더해져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며 어린이축제 '아이'는 행복한 아이와 건강한 가정, 그리고 함께 가꾸는 마을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어린이 축제 '아이'는 주암호 생태문화협의회가 주최하고 순천YMCA가 주관하며 K-warter 주암지사가 후원하는 행사로 최근 순천조례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1,000명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어린이축제 아이의 행사는 크게 체험, 기획, 먹거리, 물.환경 퀴즈 골든벨, 문화공연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9회 물사랑 그림엽서 공모전은 5월 한달간 '물사랑'을 주제로 진행되어 약 700명의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